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 13권 1호 (2012. 4) pp. 33~43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3 Iss. 1 (April, 2012)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분노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문소현* · 안효자**†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es of Parental Attach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n Anger and Anger Expression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o-Hyun Moon* · Hyo-Ja An**†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Assi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 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has a purpose of contributing to understandi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by examining influences of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by the children on their anger trait and anger expression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13 students in grade 4~6,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the SPSS/PC 18.0 program.

**Results:** The result showed the stable attachment with parents significantly influences children's anger and expression(anger out/control). And mother's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stronger than father's attachment, especially mutual trust and communication. Father's attachment had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s state-trait anger and anger out/in, and mother's attachment had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s state-trait anger and anger out. Actually father's attachment had stronger influences children's anger and anger expression.

**Conclusions:** There was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ttachment and anger trait/expression b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s anger, programs focusing on improving father-child relationships need to be established.

*Key words:* Attachment, Anger trait, Anger expression, Multi-cultural family

---

접 수 일 : 2012년 3월 2일, 수 정 일: 2012년 4월 7일, 채 택 일: 2012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안효자 (520-714 전남 나주시 건재로 253)
Tel: 061-330-3586, Fax: 061-330-3580, E-mail: callm68@dsu.ac.kr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점차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7년에는 100만 명 돌파하였고, 2010년에는 13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법무부, 2010). 교육과학부기술부(2010)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2009년도 대비 2010년에 21.4%나 증가하였으며, 학교 급별 다문화가정 재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78.6%로 월등히 높았다. 부모의 국적별 비율은 일본(36.4%), 중국(17.3%), 필리핀(17.1%)순이었고, 지역별 거주 현황은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전남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여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차이, 고부간의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설동훈 등, 2006).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역시 언어발달이 늦고,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외모에 따른 왕따와 놀림 등으로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오성배, 2005; 서현과 이승은 2007; 설동훈 등, 2006).

김승권 등(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 따돌림, 놀림의 이유가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음'이 두 번째 원인으로 분석되어(김승권 등 2009),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놀림과 왕따를 경험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반응은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반대로 폭력적이고 과잉행동을 보이고, 결국 학교에서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문제, 학습결손과 차별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방황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오성배, 2005; 안효자, 2008; 안효자 등,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불안,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갈등은 결국 문화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실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분노감정은 신체화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떠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안효자 등, 2011; Liu 등, 2011).

분노와 적대감은 아동기부터 경험하게 되는 정서로 보고되고 있으나(Matthews & Woodall, 1988), 이러한 심리적 위험요인의 선행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 애착유형과 부모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Grunbaum 등, 1997). 또한 분노의 적절한 표현방법을 모르는 아동은 자신의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대처와 표출하기 쉽고(Freeberg, 1982), 다문화가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으로 부정적인 정서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분노정도와 분노표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경험에도 각기 다른 정서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같은 정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정서를 조절하는 정도와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초기 애착 대상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경험이 아동기를 포함한 이후의 과정에도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김진아, 2007; 이지영, 2010). 영아기 시절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유아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형성

에 신뢰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동은 사교성이 있으며 교사에게 덜 의존적이고(이지영, 2010; Sroufe 등, 1983), 또한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분노와 적대감 같은 성격의 특성 발달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ris 등, 2004).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화, 불안과 적대감, 학교부적응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무엇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Ainsworth 등, 1974).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가 다른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분만을 하게 되어 태교할 시간도 여유도 없고, 자녀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준비 없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가 부족하여 자녀와 충분한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김연수, 2008; 박영주 등, 2006; 송선화와 안효자, 2011; Hoff 와 Naigles, 2002; Weizman 와 Snow, 2001),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 가는 자녀양육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전성희, 2010; 남윤주와 이숙, 2009; 허균, 2011),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애착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며 더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의 애착과 분노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아동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1)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 정도와 분노 및 분노표현 정도를 파악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 애착안정성 차이를 파악한다.
3)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 애착 정도에 따른 분노와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Ⅱ.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와 모의 애착 정도에 따른 분노와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와 G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version 3.1.2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양측 검정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3(중간), 검정력 0.8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수는 84명이었으며,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113명이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자료가 수집되었고, J도와 G광역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센터장을 만나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 및 한글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가 자기

기입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방문 및 한글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27부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3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부모에 대한 애착

Armsden 과 Greenberg(1987)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을 번안한 옥정(1998)의 척도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가 아동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아동도 부·모를 믿음직하게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상호신뢰감 10문항, 부·모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의사소통 9문항, 아동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소외감 6문항 3가지 하위영역에 걸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 애착과 모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의 범위는 '결코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애착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부 .93, 모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부 .91, 하위영역별 신뢰 .83, 의사소통 .88, 소외감 .65이었고, 모 .92 하위영역별 신뢰 .85, 의사소통 .90, 소외감 .61이었다.

### 2)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it-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Spielberger (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이영식과 조주연(1999)이 번안하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전체 문항은 상태분노 10문항, 특성분노 10문항과 분노표현(anger expression)을 측정하는 분노억제(anger-in) 8문항, 분노표출(anger-out) 8문항, 그리고 분노조절(anger-control) 8문항,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분노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이며, 특성분노는 평상시의 분노 빈도나 분노를 느끼는 정서 상태를, 분노표현은 분노가 표현되는 빈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억제 8문항은 분노감정을 참거나 억압하는 내향화된 분노를, 분노표출 8문항은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분노를 표현하는 외향화된 분노를, 그리고 분노조절은 개인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범위는 '거의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상태분노, 기질분노가 각각 10점에서 40점, 분노억제, 분노조절 및 분노표출이 각각 8점에서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정도가 높고 하위영역별로 분노표현을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이영식과 조주연(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상태분노 .94, 기질분노 .84, 분노조절 .80, 분노억제 .52, 그리고 분노표출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상태분노 .92, 기질분노 .85, 분노조절 .82, 분노억제 .64, 그리고 분노표출 .58이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부애착과 모애착 차이, 부/모 애착정도와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와 분노표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였고, 부/모 애착과 분노,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1.4세였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52.2%(59명), 둘째 33.6%(38명), 셋째 8%(9명)순이었고, 가족유형은 부모 양친과 거주하고 있음이 96.4%(109명)로 가장 많았다. 가정형편은 중 54.9%(62명), 하 26.5%(30명), 상 16.9%(19명) 순이었고,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 43.4%(49명), 필리핀 24.8%(29명), 중국 22.1%(25명)을 차지하였다. 아버지 나이는 45~49세 43.4%(49명)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도 37.2%(42명)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나이는 40~44세 40.7%(46명), 45세 이상 30.1%(30.1%)로 40이상이 70%이상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3)

| 특성 | 분류 | N(%) or M±SD | Range |
|---|---|---|---|
| 나이 | | 11.4±1.00 | 10~14 |
| 출생순위 | 첫째 | 59(52.2) | |
| | 둘째 | 38(33.6) | |
| | 셋째 | 9(8) | |
| | 외동 | 4(3.5) | |
| | 기타 | 3(2.7) | |
| 가족유형 | 부모 | 109(96.4) | |
| | 편모 혹은 편부 | 3(2.7) | |
| | 조손가정 | 1(0.9) | |
| 가정형편 | 상 | 19(16.9) | |
| | 중 | 62(54.9) | |
| | 하 | 30(26.5) | |
| | 기타 | 2(1.8) | |
| 모국적 | 중국 | 25(22.1) | |
| | 일본 | 49(43.4) | |
| | 필리핀 | 28(24.8) | |
| | 베트남 | 3(2.7) | |
| | 기타 | 8(7.1) | |
| 부나이 | 50세 이상 | 42(37.2) | |
| | 45~49세 | 49(43.4) | |
| | 40~44세 | 19(16.8) | |
| | 35~39세 | 2(1.8) | |
| | 기타 | 1(0.9) | |
| 모나이 | 45세 이상 | 34(30.1) | |
| | 40~44세 | 46(40.7) | |
| | 35~39세 | 21(18.6) | |
| | 30~34세 | 4(3.5) | |
| | 29세 이하 | 3(2.7) | |
| | 기타 | 5(4.5) | |

### 2. 대상자의 부/모 애착, 분노, 분노표현 정도

대상자가 지각하는 부애착과 모애착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 애착 정도는 평균 89.27점(평점 3.57), 모 애착정도는 평균 93.53점(평점 3.74)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애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46, $p$=<.001). 구체적으로 하위영역별 요인을 살펴보면 부의 상호신뢰감 평균 35.41점(평점 3.54), 의사소통 29.06점(평점3.22), 소외감 24.34점(평점 3.47)이었고, 모의 상호신뢰감 36.85점(평점3.68), 의사소통 31.62점(평점 3.51), 소외감 24.83점(평점 3.54)으로 나타났다. 애착 하위요인에서 상호신뢰감과(t=-3.92, $p$=<.001) 의사소통

은(t=-4.85, $p$=<.001) 부와 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외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태분노는 평균 11.82점(평점 1.18), 특성분노 15.34점(1.53), 분노표현은 41.60점(평점 1.73)이었고, 하위영역별 분노조절 16.53점(평점2.06), 분노표출 12.31점(1.53), 분노억제 13.24점(1.65)이었다<표 2>.

## 3. 부모애착 유형에 따른 차이

부모 애착 정도에 따른 분노와 분노표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부모 애착에 대한 애착점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애착 점수와 모애착 점수가 높은 그룹을 안정형으로 부애착 점수와 모애착점수가 낮은 그룹을 불안정형 2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정형 그룹이 안정형 그룹보다 유의하게 상태분노와(t=2.39, $p$=.019) 특성분노(t=2.67, $p$=.008), 분노표현 중 분노표출(t=2.69, $p$=.008) 점수가 높았고, 분노조절 점수는 안정형 그룹이 불안정형 그룹보다 높았다(t=-2.58, $p$=.011). 분노억제는 불안정형 그룹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표 2> 부/모애착, 분노, 분노표현 정도

(n=113)

| 변수 | 범주 | M(SD) | t | p | 범위 |
|---|---|---|---|---|---|
| 애착 | 부 | 89.27(17.33) | -4.46 | <.001 | 48-121 |
| | 모 | 93.53(17.67) | | | 51-122 |
| 상호신뢰감 | 부 | 35.40(7.79) | -3.92 | <.001 | 18-48 |
| | 모 | 36.85(7.96) | | | 16-50 |
| 의사소통 | 부 | 29.06(8.44) | -4.85 | <.001 | 12-45 |
| | 모 | 31.62(8.62) | | | 12-45 |
| 소외감 | 부 | 24.34(3.98) | -1.97 | .051 | 13-30 |
| | 모 | 24.83(3.63) | | | 13-30 |
| 상태분노 | | 11.82(3.93) | | | 10-31 |
| 특성분노 | | 15.34(4.19) | | | 10-29 |
| 분노표현 | | 41.60(8.05) | | | 24-66 |
| 분노조절 | | 16.53(4.79) | | | 8-29 |
| 분노표출 | | 12.31(2.20) | | | 8-24 |
| 분노억제 | | 13.24(2.94) | | | 8-21 |

<표 3> 부모애착 유형에 따른 분노와 분노표현

(n=113)

| 구분 | 상태분노 | | | 특성분노 | | | 분노조절 | | | 분노표출 | | | 분노억제 | | |
|---|---|---|---|---|---|---|---|---|---|---|---|---|---|---|---|
| | n | M (SD) | t(p) | n | M (SD) | t(p) | n | M (SD) | t(p) | n | M (SD) | t(p) | n | M (SD) | t(p) |
| 불안정형 | 51 | 12.98 (5.10) | 2.39 (.019) | 52 | 16.13 (4.15) | 2.67 (.008) | 51 | 15.35 (4.41) | -2.58 (.011) | 51 | 12.92 (2.79) | 2.69 (.008) | 48 | 13.52 (3.15) | 1.42 (.158) |
| 안정형 | 49 | 11.06 (2.41) | | 49 | 14.02 (3.73) | | 48 | 17.79 (4.99) | | 49 | 11.53 (2.33) | | 48 | 12.67 (2.72) | |

### 4. 부/모애착,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표현간의 상관관계

부애착은 상태분노(r=-.33, p= <.001)와 특성분노(r=-.30, p=.001), 분노표현 하위 영역 중 분노조절을 제외한 분노표출(r=-.26, p=.006)과 분노억제(r=-.20, p=.041) 간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모애착은 상태분노(r=-.24, p=.012)와 분노표현 하위 영역 중 분노표출(r=-.20, p=.032) 간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4> 부모애착, 분노, 분노표현간의 상관관계

(n=113)

| | 부 애착 | 모 애착 |
|---|---|---|
| 상태분노 | -.33(.000) | -.24(.012) |
| 특성분노 | -.30(.001) | -.14(.142) |
| 분노조절 | .17(.069) | .15(.127) |
| 분노표출 | -.26(.006) | -.20(.032) |
| 분노억제 | -.20(.041) | -.15(.124) |

## Ⅳ. 토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아동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형편은 중간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나이는 45세 이상이 80%이상이고 어머니의 나이는 40세 이상이 70%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2010)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며, 일본인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가장 많다고 하였으며, 김승권 등(2009)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은 중하정도로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 간의 나이차이가 10살 이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안효자(200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부모 나이가 일반 초등학교 부모보다 많고, 부부간에 나이차이도 많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 애착 정도는 평균 89.27점(평점 3.57), 모 애착정도는 평균 93.53점(평점 3.74)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애착을 높게 지각하였고, 하위영역에서는 상호신뢰감과 의사소통이 부애착 보다는 모애착에서 높았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진아(2007)의 연구에서는 부애착의 평점이 3.76점, 모애착의 평점이 3.89점으로 본 연구보다 부모애착 모두 높았고, 부애착보다는 모애착이 높은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효영(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애착 평균은 74.21점, 모애착 평균은 76.10점으로, 부모애착 점수가 본 연구의 부모애착 점수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김진아(2007)의 연구에서는 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감 모든 영역에서 모애착이 부애착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신뢰와 의사소통에서 모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소외감은 아동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말하고 소외감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을 적게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 점수가 부애착 점수보다 높아 엄마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부애착과 모애착을 분리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및 조사 방법

의 보완을 통한 추후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김효영(2010)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평점이 가장 낮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부와의 의사소통의 문제와 한국어가 부족한 모와의 의사소통의 문제(오성배, 2005; 서현과 이승은 2007; 설동훈 등, 2006; 송선화와 안효자, 2011)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분노와 분노표현 정도에 있어, 상태분노는 평균 11.82점(평점 1.18), 특성분노 15.34점(1.53), 분노표현은 41.60점(평점 1.73)이었고, 하위영역별 분노조절 16.53점(평점2.06), 분노표출 12.31점(1.53), 분노억제 13.24점(1.65) 이었다. 김진아(2007)의 연구결과를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상태분노 평점 1.55점, 특성분노 평점 2.42점이고 하위영역별로는 분노조절 평점 2.57점, 분노표출 평점 2.28점, 분노억제 평점 2.05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아동들이 환경에 순응하여 분노를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와(백미진, 2002)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반응은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에(오성배, 2005; 안효자, 2008) 의해 지지된다. 일반아동에 비해 전반적인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의 점수는 낮았으나, 개인의 분노 경향성인 특성분노가 분노유발상황에 대한 반응인 상태분노보다 높아 아동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상황에서 분노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분노표현 하위영역 중 분노억제점수가 분노표출보다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는데, 분노의 억압은 자신의 내부로 분노를 향하게 하여 미래 심혈관 질환 발생과 관련성이 높고(Denollet 등, 2010) 분노억제 점수가 높은 청소년들에게서 보다 더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고 능동적인 신체적 활동 시간 부족 등 부적절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와 생애초기 부정적인 사회경제환경에 노출될수록 분노와 같은 심리요인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Merjonen 등, 2008)에 근거하여 지속된 분노가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애착유형을 부애착 점수와 모애착 점수가 높은 그룹을 안정형으로 낮은 그룹을 불안정형 2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불안정형 그룹이 안정형 그룹보다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분노표현 중 분노표출 점수가 높았고, 분노조절 점수는 안정형 그룹이 불안정형 그룹보다 높았다. 즉, 불안정한 경우는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분노와 특성에 따른 지속적인 분노를 높게 느끼고 있고, 분노표현에 있어서도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자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혜진 등(2008)의 연구에서 의존형과 두려움형과 같은 불안정 애착집단이 특성분노가 높고 두려움형의 경우 분노억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의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도 높아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분노를 쉽게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김현주와 이정윤, 2011).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 신체적, 사회적, 인성적, 학업적 자아개념 수준이 높고(김효영, 2010),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이지영, 2010)도 높아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분노의 표현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분노와 분노표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애착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분노표현 하위 영역 중 분노조

절을 제외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간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모애착은 상태분노와 분노표현 하위 영역 중 분노표출 간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김진아(2007)의 연구에서 부애착은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부애착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모애착은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와 분노표출에서만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모애착보다는 부애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외국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깊은 연민을 가지는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였는데, 자녀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일관성 없는 훈계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났다(안효자 등, 2011). 황미경과 허균(2010)의 연구에서도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사회불안과 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갈등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아동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각하는 부애착과 하위요인별(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감) 평점은 3.57점, 3.54점, 3.22점, 3.47점이고, 모애착은 3.74점, 3.68점, 3.51점, 3.54점으로 나타났다. 부애착과 모애착정도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상호신뢰와 의사소통에서 부애착보다 모애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애착이 불안정형 그룹이 안정형 그룹보다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분노표현 중 분노표출 점수가 높았고, 분노조절 점수는 안정형 그룹이 불안정형 그룹보다 높았다. 분노억제는 불안정형 그룹의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부애착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분노표현 하위 영역 중에서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간의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고, 모애착은 상태분노와 분노표현 하위 영역 중 분노표출 간의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적 적응과 관련하여 모애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미치는 애착의 영향을 부와 모를 구분하여 규명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애착 보다는 모애착이 높지만, 분노정도와 분노표현에 있어서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두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표본수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모애착이 높지만 실제 분노에는 부애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와 관계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입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0.
2. 김승권 외 7명.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

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625-01) 2010.
3. 김연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08;24:189-222.
4. 김진아.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5. 김현주, 이정윤.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2011;12(3):965-981.
6. 김혜진, 신현균, 홍창희.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08;27(3):729-748.
7. 김효영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8. 남윤주, 이숙.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9;47(9):27-36.
9. 박영주 외 5명.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및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분노. 기본간호학회지 2006;13(2):304-311.
10. 백미진. 사회계층별 학령기 아동의 분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465-10). 경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서현, 이승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007;12(4):25-47.
13. 설동훈, 이혜경, 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발간등록번호 11-1060100-000155-01) 2006.
14. 송선화, 안효자.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11;20(2):167-179.
15. 안효자. 일개 시 농어촌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8;17(4):383-391.
16. 안효자, 조성식, 조원탁.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중·고등학생의 일본 관련 역사교육 경험. 한국지역사회학회 2011;19(3):47-75.
17.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2005;32(3):61-83.
18. 옥정.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19. 이영식, 조주연.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9;38(4):794-804.
20. 이지영.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2010;65:169-186.
21. 전성희.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0.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3. 허균. 다문화가정에서 모애착,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및 부적응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28:209-223.
24. 황미경, 허균. 동북아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사회불안심리에 미치는 영향-중국, 일본, 러시아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010;23:277-287.
25. Ainsworth MDS, Bell SM, Stayton DJ. Infant-mother attachment and social development : Socialization as a product of

reciprocal responsiveness to signals. In M. P. M. Richards(Ed.), The intergration of a child into a social wor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pp. 97-119.

26. Armsden GC, Greenberg M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87; 16:427-454.
27. Denollet J, Gidron Y, Vrints CJ, Conraads VM. Anger, suppressed anger, and risk of adverse event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Am J Cardiol* 2010; 105(11): 1555-1560.
28. Freeberg S. Anger in adolesc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982;21:565-574.
29. Grunbaum JA, Vernon SW, Clasen CM. The association between anger and hostility and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Ann Behav Med 1997;19(2):179-189.
30. Hoff E, Naigles L. How children use input in acquiring a lexicon. *Child Development* 2002;73:418-433.
31. Liu L, Cohen S, Schulz MS, Waldinger RJ. Sources of somatization: exploring the roles of insecurity in relationships and styles of anger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 Sci Med* 2011;73(9):1436-1443.
32. Matthews KA, Woodall KL. Childhood origins of overt type A behaviors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to behavioral stressors. *Ann Behav Med* 1988;10:71-77.
33. Merjonen 외 8명. Anger is associated with subclinical atherosclerosis in low SES but not in higher SES men and women. The Cardiovascular Risk in Young Finns Study. *J Behav Med* 2008;31(1):35-44.
34. Muris P, Meesters C, Morren M, Moorman L.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vied parental rearing styles. *J Psychosom Res* 2004;57:257-264.
35. Spielberger.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review. *Ann Behav Med*. 1988;19:179-189.
36. Sroufe LA, Fox NE, Pancak, VR. Attachment and dependency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1983;54:1615-1627.
37. Weizman ZO, Snow CE.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 Psychology* 2001;37:265-279.